

# Beyond Green, Colorful Green

KC그린홀딩스  
제 132호 KC뉴스레터



## 제 132호 KC뉴스레터

2024년 2분기에 있었던  
KC그린홀딩스와 관계사의 소식을 공유합니다.

## 목차

### 대외 홍보

- <KC그린홀딩스 50년사> 발간
- 클레스트라 하우스저만 쇼룸 오픈 행사

### 교육/커뮤니케이션

- KC그린홀딩스, KC 승진자 교육 성료
- KC솔라앤에너지 '블루오션 파이딩' 워크숍

### 안전관리

- 엔더블유엘퍼시픽, 무재해 5배수 달성 기념식
- KC네트웍, 화재대응 모의훈련 실시

### 사회공헌

- KC그린홀딩스 제6회 환경개선활동 실시 <하천정화>

### 기타

- [환경] 여름철 곤충의 환경적 역할
- [안전] 휴가철 응급상황
- [ESG]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기업의 노력 - ② 자발적 탄소시장

- 
- 발행일 : 2024년 7월
  - 발행주관 : KC그린홀딩스 지속가능경영팀
  - 문의/발간 : yuseung@green-kc.com

## <KC그린홀딩스 50년사> 발간

KC그린홀딩스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KC그린홀딩스 50년사>를 발간했다. <KC그린홀딩스 50년사>는 창립부터 현재까지의 여정과 사업 부문별 확장 과정을 담고 있으며, KC관계사와의 이야기도 포함하고 있다.



<KC그린홀딩스 50년사>는 시대별로 세분화하여, 각 시기의 변천 과정을 기록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KC의 사업 확장, 기술 개발, 대외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KC그린홀딩스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조명하고 있다. 또한 50주년을 기념하여 경영진의 소회를 담은 좌담회도 함께 수록되었다.

KC그린홀딩스는 50주년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임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준 임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KC그린홀딩스 50년사>는 국내 국공립 도서관 및 대학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끝)

### 대외 홍보

<KC그린홀딩스 50년사> 발간

클레스트라 하우스저만 쇼룸 오픈 행사

교육/커뮤니케이션 활동

안전관리

사회공헌

기타

< 3 >







#### 대외 홍보

<KC그린홀딩스 50년사> 발간  
클레스트라 하우스만 쇼룸 오픈 행사

교육/커뮤니케이션 활동

안전관리

사회공헌

기타

클레스트라 하우스만이 서울 사무실 쇼룸 오픈 행사를 개최했다. 김종오 사장은 "새로운 쇼룸 오픈을 통해 고객들에게 클레스트라 하우스만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광일 팀장은 쇼룸 컨셉에 대해 설명했다. "국내에서 시스템 칸막이를 아는 업체들은 많지만, 시스템 파티션이 네모나게 공간 구분만 가능하다고 아는 편이다. 그래서 클레스트라 하우스만의 시스템 파티션으로 라운드 구조, 수직에서 라운드 구조, 투명 LED 삽입 부분, 라인 조명 등 칸막이를 인테리어처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보여주고자 했다. 또한, ESG 경영이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클레스트라 하우스만도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천장 조경작품을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철사를 재활용하여 만들었다.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컨셉을 잡고 결과물을 도출했다."

쇼룸 투어에서는 새롭게 단장된 공간과 클레스트라 하우스만의 최신 제품들이 소개되었으며, 제품 시연과 설명이 이루어졌다. 클레스트라 하우스만은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과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 4 >





대외 홍보

교육/커뮤니케이션 활동

KC그린홀딩스, 승진자 교육 성료

KC솔라앤에너지 워크숍 진행

안전관리

사회공헌

기타



지난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KC그린홀딩스는 광화문 세미나룸A에서 KC관계사의 승진자를 대상으로 승진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승진 후 조직 내에서 회사와 함께 성장할 원동력과 나침반을 제공하고, 직급별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며 수행하기 위한 기초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교육 내용은 자기 역할 인식과 마인드셋, 자기 인식과 커뮤니케이션, 워크스마트 시뮬레이션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참가자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 특히, 승진자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조직 내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교육은 KC승진자 공통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KC관계사의 17명의 승진자들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4.8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으며, 참가자들은 "나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승진 후 리더십과 팔로워십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는데 교육을 통해 배우고 실천할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KC그린홀딩스는 이번 교육을 통해 승진자들이 회사와 개인의 성과를 창출하고, 협업 관계를 개선하며 소속감을 고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

< 5 >







대외 홍보

교육/커뮤니케이션 활동

KC그린홀딩스, 승진자 교육 성료

KC솔라앤에너지 워크숍 진행

안전관리

사회공헌

기타

## KC솔라앤에너지 '블루오션 파인딩' 워크숍 진행

KC솔라앤에너지는 지난 5월 23일과 24일, 은평 한옥마을에서 '블루오션 파인딩'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회사의 확장 가능한 영역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조별로 나뉘어 다양한 신사업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워크숍에서는 현재의 회사 내외부 환경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달 가능한 새로운 시장과 그 위치를 예측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을 논의했다. 또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마련하여 회사의 미래 전략을 구체화했다.

KC솔라앤에너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직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회사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현재와 미래의 시장 기회를 발굴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민하고 혁신하여 성장할 것이다."고 전했다. (끝)

< 6 >



# 엔더블유엘퍼시픽, 무재해 5배수 달성 기념식

엔더블유엘퍼시픽은 2016년 1월 19일 시작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 직원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지난 6월 24일 무재해 5배수 (2080일)를 달성했다. 이에 동일, 무재해 5배수 달성을 기념하고, 이를 위해 힘써준 직원들을 포상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무재해 운동’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다같이 참여해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 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산업재해를 근절해 인간중심의 밝고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자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무재해 운동 시행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에 기안해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 무재해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엔더블유엘퍼시픽 김현석 대표는 “앞으로도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지속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며, 안전 보건 경영시스템을 확립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끝)

대외 홍보

교육/커뮤니케이션 활동

안전관리

엔더블유엘퍼시픽, 무재해 기념식

KC네트워크, 화재대응 모의훈련 실시

사회공헌

기타

< 7 >





## KC네트워크, 화재대응 모의훈련 실시



KC그린홀딩스



클레스트라 하우저만



KC솔라앤에너지 & KCVCS



KC솔라앤에너지 & KCVCS



클레스트라 하우저만



KC코트렐

KC그린홀딩스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 대피 시나리오 작성과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기존에 사무직 직원들에게 실시했던 소화기 사용법 교육, 응급처치 교육, VR을 통한 대피 교육 등을 넘어 실제 대피 훈련과 역할 분담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시나리오 작성을 통해 자체 소방대를 조직하여 직원들이 추후 실제 상황 발생 시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수행함으로써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KC그린홀딩스를 시작으로, 상암 사옥에 근무하는 KC관계사(클레스트라 하우저만, KC코트렐, KC솔라&에너지, KCVCS) 모두가 개별적 모의훈련에 동참했다.

훈련에 앞서 근무지 내 소방시설과 비상구 위치를 파악한 후, 자체 소방대를 조직하여 각자의 역할을 정했다. 본 훈련은 화재 발생 신고, 초기 진화, 화재 발생 전파, 비상 대피(비상 반출 포함), 부상자 구조 및 후송, 마무리 단계로 진행되었다.

훈련을 진행한 담당자는 "훈련이 자체적으로 진행되어 신속한 대피가 가능했지만, 실제 상황 발생 시에는 같은 건물 내 다른 입주사 직원들도 동시에 대피해야 하므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실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오늘 훈련 내용을 잘 기억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

대외 홍보

교육/커뮤니케이션 활동

안전관리

엔터블유엘퍼시픽, 무재해 기념식

KC네트워크, 화재대응 모의훈련 실시

사회공헌

기타

< 8 >





대외 홍보

교육/커뮤니케이션 활동

안전관리

사회공헌

KC그린홀딩스 하천정화 활동

기타



## KC그린홀딩스 제6회 환경개선활동 실시 <하천정화>

KC그린홀딩스는 올해 '하천정화'를 주제로 제6회 환경개선활동을 실시했다. 여름철 강수량 증가로 인해 도로와 농지 등에 쌓인 오염 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기온 상승으로 수온이 높아지면서 수중 오염 물질의 분해 속도가 변화하여 하천 오염이 더욱 심화된다. 이를 방지하고 하천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이번 활동을 계획했다.

하천정화 방법에는 유용한 미생물로 만들어진 흙공을 던지는 △EM흙공 던지기, △수중식물 식재, △하천 쓰레기 수거 등이 있다. 그 중 KC그린홀딩스는 EM흙공을 만들어 던지고 하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직원들은 150개가 넘는 EM흙공을 직접 혼합 반죽하여 만들고, 잘 발효된 EM 흙공 50개도 함께 홍제천에 던지는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은 새로운 하천 정화 방법을 알게 되고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 뜻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끝)

< 9 >



# [환경] 여름철 곤충의 환경적 역할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벌레들이 눈에 띄게 많아지는 계절이 돌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여름철 벌레들의 등장에 불편함을 느끼지만, 이 곤충들은 우리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곤충들은 익충과 해충으로 나뉘며, 각각의 환경적 효과는 매우 다양하다.

## 익충의 환경적 역할

익충은 인간에게 이로운 곤충들을 일컫는다. 대표적인 예로는 꿀벌, 무당벌레, 그리고 잠자리 등이 있다. 이들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수분작용: 꿀벌과 같은 곤충들은 꽃가루를 옮기며 식물의 수분작용을 돕는다. 이는 식물의 번식과 과일 생산에 필수적이다.
- 해충 제어: 무당벌레는 진딧물과 같은 해충을 먹어 농작물의 피해를 줄인다. 잠자리는 모기와 같은 유해한 곤충을 잡아먹어 질병 확산을 막아준다.
- 분해작용: 딱정벌레와 같은 곤충들은 죽은 식물과 동물을 분해하여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한다. 이는 토양의 건강과 농작물 성장에 기여한다.

## 해충의 환경적 역할

해충은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곤충들을 의미한다. 모기, 바퀴벌레, 그리고 파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곤충들은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주거나 질병을 퍼뜨리기도 하지만, 환경적 역할도 있다.

- 자연계의 균형 유지: 해충들은 먹이사슬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예를 들어, 모기는 여러 생물의 먹이가 된다. 이는 다양한 생물의 생존을 돕고,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한다.
- 유기물 분해: 바퀴벌레와 파리 같은 곤충들은 썩은 음식물과 배설물을 분해하여 자연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자연 재료가 순환되며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된다.
- 유전자 다양성 촉진: 일부 해충들은 식물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식물이 진화하고 적응하도록 돕는다. 이는 식물의 유전자 다양성을 증가시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인다.

여름철에 등장하는 곤충들은 익충이든 해충이든 모두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간에게 불편함을 주는 해충들도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기능하며, 익충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준다. 따라서 곤충들을 단순히 혐오의 대상이 아닌, 우리 환경을 지탱하는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끝)

대외 홍보

교육/커뮤니케이션 활동

안전관리

사회공헌

기타

[환경] 여름철 곤충의 환경적 역할

[안전] 휴가철 응급상황

[ESG] 자발적 탄소시장

< 10 >





# [안전] 휴가철 응급상황

국내와 해외, 자연으로의 휴가철이 다가왔다. 여행 중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이유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단한 처치와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숙지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해외 여행 중 필요한 비상용품

여행할 목적지의 질병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개발도상국처럼 특정 약물을 구입하기 어려운 지역을 여행할 경우, 구급키트를 준비해 가야 한다. 처방약물의 경우 의사의 확인을 받아 의학증명서와 함께 필요 약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모든 약물은 분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2개의 가방에 나누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 (계속)

###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기본 의료 키트 구성품

| 응급치료 품목   | 개인 필요에 따른 추가 품목                              |
|---|--|
| 탄력테이프, 비말소염제, 상처소독제,<br>구강용 탈수방지 소금, 붕대,<br>가위와 안전핀, 진통성 안약,<br>간단한 진통제, 살충제, 멸균거즈,<br>곤충 물림 치료제, 체온계 | 지사제, 항말라리아 약물,<br>현재 질환을 위한 약물,<br>수용성 살충제 등 |

### ● 세계보건기구가 제안하는 해외여행자를 위한 식사요령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온에서 3~5시간 방치된 음식 주의(식중독 위험 증가, 조리된 음식 포함)</li> <li>- 껍질이 있는 과일/채소 외 조리되지 아니한 어떤 음식도 피할 것</li> <li>- 살균 안된 우유는 반드시 끓여서 섭취할 것</li> <li>- 제조회사나 원료가 확실하지 않은 아이스크림 주의(질병 유발 가능)</li> <li>- 일부 어패류는 가열 후에도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현지인에게 조언을 구하고 섭취할 것</li> <li>- 음용수의 안정성이 의심되면 끓이거나 식수소독약으로 소독하여 먹을 것 (약국에서 구입)</li> <li>- 안전한 물로 만들어졌다는 확신이 없다면 얼음을 먹지 말 것</li> <li>- 뜨거운 홍차나 커피, 포장된 주스/맥주/탄산음료는 섭취 가능</li> </ul> |
|--|

대외 홍보

교육/커뮤니케이션 활동

안전관리

사회공헌

기타

[환경] 여름철 곤충의 환경적 역할

[안전] 휴가철 응급상황

[ESG] 자발적 탄소시장

< 11 >



# [안전] 휴가철 응급상황

## 항공기 내 응급상황

기내에서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기내는 지상보다 낮은 기압, 소음과 진동, 차고 건조한 공기, 기체의 흔들림, 낮은 산소 농도 등으로 인해 폐/뇌혈관 질환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항공 여행 중 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항공사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고, 기내에 있는 의료인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해야 한다.

| 항공여행이 원칙적으로 부적합한 경우   | 해외 항공여행 건강안전 10대 수칙   |
|---|---|
| <p>생후 14일 미만의 초생아<br/>32주(8개월) 이상된 임산부<br/>중증 중이염 환자<br/>급성감염성 질환 또는 전염병 환자<br/>객혈, 토혈, 신음 정도가 심한 환자<br/>다량의 진정제 사용을 요하는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 약품 등의 중독 상태에 있는 자<br/>심장질환자 중 심한 심부전 환자/최근 심근경색을 일으킨 환자(약 6주 이내)<br/>창상 치료에 충분한 시간을 못 가진 최근 수술환자 (흉부/복부 수술 후 10일 미만인 자)</p> | <p>출발 전 과음을 삼가할 것<br/>과중한 업무로 출발 전 과로하지 말 것<br/>목적지 풍토병을 예방할 것<br/>기내에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것<br/>기내에서 혈액순환 촉진을 위해 운동할 것<br/>도착시간에 맞춰 음식 섭취를 조절할 것<br/>건강과 쾌적한 기내환경을 위해 금연할 것<br/>첫 출발부터 시차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할 것<br/>무리한 수면유인을 위해 과음을 피할 것<br/>끓인 물을 마시고 평소 개인위생을 실천할 것</p> |

이 외에도, 해외에서 부상으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소방청의 응급의료상담서비스 '재외국민 119 응급의료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여행객 뿐만 아니라 유학생, 원양선원, 재외동포 등 해외에 있는 국민 누구나 전화나 이메일로 요청하면 응급의학 전문의 등을 통해 실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끝)

- 대외 홍보
- 교육/커뮤니케이션 활동
- 안전관리
- 사회공헌
- 기타
  - [환경] 여름철 곤충의 환경적 역할
  - [안전] 휴가철 응급상황
  - [ESG] 자발적 탄소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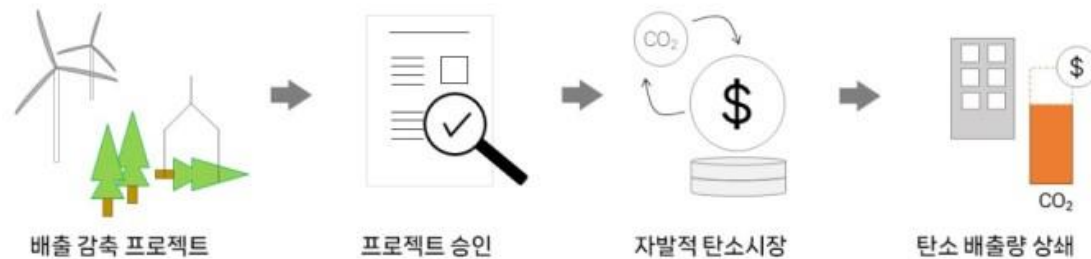
< 12 >





## [넷제로②]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기업의 노력 – (2)자발적 탄소시장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배출량이 큰 기업이 정부로부터 배출할 수 있는 배출허용량을 부여받아 배출량을 점차 감축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는 제도라면 자발적 탄소시장은 말그대로 기업이나 조직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뜻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 VCM)이란, 국제조약이나 정부 규제에 따른 감축의무가 없는 주체가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 사업을 하고, 감축 실적에 대해 제3의 민간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탄소배출권이나 상쇄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기존의 규제 탄소시장(배출권 거래제의 상위개념이자 자발적 탄소시장의 반대개념)은 배출량 규제 대상이 아닌 기업에는 탄소 감축을 유도할 요인이 없었고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탄소 배출량 감축 투자 비용보다 낮은 경우 기업이 탄소 감축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결국 배출 절대량 감축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자발적 탄소시장은 규제 대상이 아닌 기업도 자발적으로 감축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탄소 배출량 더욱 적극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성장을 막는 요인으로 꼽히는 탄소크레딧의 신뢰도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자발적 탄소시장이 성장하고 규제 탄소시장과 더불어 자발적 탄소시장이 활발하게 운영된다면 넷제로라는 전지구적 목표에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끝)

대외 홍보

교육/커뮤니케이션 활동

안전관리

사회공헌

기타

[환경] 여름철 곤충의 환경적 역할

[안전] 휴가철 응급상황

[ESG] 자발적 탄소시장

< 13 >



